

#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제777호



온주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이 협회 회원 업소를 방문해 정부의 주류판매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한 후 함께 했던 회원들과 업소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뒷줄 오른쪽 V자를 만들어 보이는 회원이 업주 유정현 회원. 관련 기사 15면)



[www.okba.net](http://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 매출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LOTTO MAX 앞치마를 착용하십시오

판촉 메모지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교육하십시오

LOTTO MAX의 새로운 파격적 특징을 고객들에게 홍보하십시오: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추첨
- 1 등상 최고 \$7천만
- 사전 구매는 주 2 회, 최다 26 주까지 가능

첫 추첨: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5 번호 조합  
3줄 당

이제

## 매주 화요일

## & 금요일 추첨

1등 상금 최고  
**\$7천만**



DREAM TO THE MAX

## 소매업자 신분 확인

소매업자정책매뉴얼 (Retailer Policy Manual) 제 2.2 절 소매업자 신분 확인 정책 (Retail Identification Policy)에 따라, 모든 해당 소매업자 및 그 직원은 복권 상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복권 단말기에서 올바르게 신분이 확인되도록 하십시오. 소매업자정책매뉴얼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읽고 이해한 직원은 업주가 자신을 대리하여 신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OLG 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소매업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또한 AGCO 가 소매업자 신분 확인 명단의 정확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한 절차

- 직원 명단을 인쇄하여 검토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명단을 점검하십시오.
- 모든 신규 직원의 성명이 올바르게 추가되도록 하십시오.
- 모든 성명은 정부 발급 신분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성명은 명단에 한 번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성명이 틀렸거나 삭제되어야 할 경우, OLG 지원센터 (Support Centre)에 연락하십시오.

복권 단말기에서 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소매업자는 OLG 에 문의하십시오 (1-800-387-0104).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박영하 / 송구영 / 이만석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ian <공석>  
Kingston 회장 이강경(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공석>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C O N T E N T S

- 04 - 05 / 편의점 술판매 대비, 미리 생각할 것들
- 06 - 09 / 편의점 술판매 따지거는 비어스토어
- 10 / JUUL의 파죽지세, 한국에도 상륙
- 11 / 세븐일레븐 모기업, 친환경 캠페인 박차
- 12 - 13 / 담배 3사 \$135억 배상 판결의 여파  
B.C 불법담배 대대적 단속 열풍  
쥬얼, 직영 체제 병행 구상
- 14 - 15 / 2019 미국인 가장 사랑하는 기업브랜드  
회원업소 방문한 조 장관, 정부 지지 당부
- 16 - 17 / '제 5의 계절 特需' 대비  
나이아가라 지구협회 골프대회
- 18 / DIRECTORY
- 19 / 조합, 고객 감사의 날 행사
- 20 ~ 23 / K.B.A. 협동조합 6월 스페셜

# [ 편의점 술판매 대비 미리 생각할 것들 ]

OCSA, “준비하는 자세 필요” 역설



편의점을 비롯한 주류 판매처 민영채널 확대 정책의 가시화로 인한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주 편의점협회(OCSA)가 최근 입장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기관 웹사이트에 발표했는데 우리 협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이를 요약 소개한다.

OCSA가 지난 오랜 세월 주류판매 편의점 허용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해온 활약상의 전면에 항상 OKBA가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협회 회원으로서 오늘의 결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사실, 편의점 업계에서도 편의점 체인사들의 열성은 거의 미온적이었던 것에 비해 정보력이나 자금력에서 열세인 독립편의점으로 구성된 협회는 대정부 로비의 최전선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해왔었다.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협회와 OCSA는 향후 남은 과제에 접근하는 공통된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편의점과 식품점 등에도 비어와 와인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해 계속 정보를 듣고 있다. OCSA는 정부, 이해당사자, 연구기관 등과 지난 7년의 세월을 함께 해오면서 온타리오 편의점 비즈니스의 일대 변화를 추동할 소매업 주류 개방 정책을 촉구해왔다.

편의점의 현재 처한 현실을 한번 보자. 담배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품목군이다. 소비자들은 베이핑 제품의 등장과 더 결정적 변수인 담배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일반담배로부터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지난 17개월간 네차레에 걸친 인상으로 카톤 당 평균 8달러 가까이 인상) 이로 인한 결과는 담배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하 시장을 찾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폐업이 속출하는 주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비어와인 판매 허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생각들을 정리해보자. 올해 예상보다 더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OCSA 회원 증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회원이 되어 최신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들은 단체로 이미 가입된 상태라 별도 가입이 불필요하다.)

둘째, 술을 보관할 쿨러 조건, 진열대 위치, 그리고 종합적인 업소 내부 정비에 대해 미리 구상을 해야 한다. 주류 판매를 위한 전체 공간 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지역 특산 맥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편의점 채널이 맥주 판매를 해야 하는 중요한 명분의 하나가 편의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맥주 양조장 제조 특산 맥주의 유통과 홍보의 근거지가 바로 편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공급은 공인된 도매채널의 포괄 서비스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며 세부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OCSA가 적극 개입해 완성을 할 것이다. OCSA는 공급처가 어디가 되든 회원들을 대변해 저들과 함께 할 것이다.



▲ 온타리오 지역 특산 맥주들. 편의점 맥주 판매가 시행될 경우, 지역 맥주 취급은 상생을 위한 중요한 배려 사항이다.

다섯째, 제품 기획, 마진을, 진열기법 등 주류 관리 전반에 걸친 업데이트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회원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다.

여섯째, 술도 담배처럼 연령 제한 품목인 바 종업원 훈련에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종업원 훈련 지침은 OCSA 웹사이트 [www.we-expect-id.com](http://www.we-expect-id.com)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OCSA는 독립편의점과 지역 체인점들이 우선적으로 올 여름 중에 판매 실사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함)

이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폈다. 한편, 회사들(\*비어스토어 채널을 거

느린 대형 맥주제조사들)로부터 (민영 채널 주류 판매 확대 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영역과 일자리)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다. 온타리오 주민들 스스로가 비어와인 소매 시장의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편의점 채널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보다 책임성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온주 보수당 더그 포트 정부는 중소기업계 입장 수용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편의점 채널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계속 기대를 걸며 OCSA를 중심으로 업계 전체가 함께 모여 주류 판매에 있어 응집력있는 구매 세력임을 입증해보이도록 하자. ■

지금  
전화주세요!



**BROKERTeam**  
INSURANCE

**박효진 (Roland Park)**  
**Cell. 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mailto:roland.park@brokerteam.ca)

실협 단체보험

CLOUD SERVER를 통한 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실시간 고객 매출등의 데이터 정보관리 가능

**“1Solutions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 보입니다!”**

포스 가격

**\$2500 + Tax**  
(바코드 스캐너, 근전함, 소프트웨어 포함)

1SOLUTIONS

DATA CORPORATION

Made in Korea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빠르다!  
간편하다!  
저렴하다!

OLG 온라인 로또 바코드 청약 사항



[www.1solutions.ca](http://www.1solutions.ca)

Toll Free 1(888)554-7355

Direct Line (905)560-4511

Fax 1(888)544-0409

[info@1solutions.ca](mailto:info@1solutions.ca)

(416)900-7533

# 편의점 술판매 딴지거는 비어스토어

知彼知己 자세로 주장의 근거 들어보나...



온타리오 보수당 정권이 추진하는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정책이 세부 실무 작업 단계까지 밟고 있는 터에 3대 민간 외국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비어스토어가 이 정책을 철회토록 강력한 딴지를 걸고 있다. 비어스토어 회장 테드 모로즈(Ted Moroz)씨가 지난 4월 26일 토론토스타 오피니언 난에 기고한 글을 정리 소개함으로써 온타리오 주류판매 소매채널 확산 정책을 반대하는 핵심적 논거의 하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편의점 좁은 공간에 지역 맥주회사제품 내 줄 공간 어디있나?

온타리오 맥주 판매 시스템 변화가 중소 양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유지야말로 중소 양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온주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하에서 이유를 살펴본다. 현재의 시스템이란 비어스토어 소매채널 시스템을 말한다. 공간이 넓어서 온 타리오산 소규모 양조장 제조 맥주 제품들을 진열 판매할 수 있다. 온주 내 중소 맥주 양조장은 보통 연간 생산량 1백만 리터 미만의 매출 수준이며 95%가 이 정도의 규모다. 그런데 비어스토어는 이들에게 대형 맥주회사에 요구하는 판매 대행 수수료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영세성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온타리오의 맥주 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다. 우리 모두 비어 애호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어스토어가 중소 맥주 양조회사들의 소유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 30개 이상의 로컬 맥주회사가 비어스토어 소유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편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b>교통사고, 개인 상해</b></p>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무 과실 보상 소송</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b>교통위반 티켓</b></p>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스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2px;"><b>형법</b></p>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참은 로컬 맥주를 진열하고 취급 중이다.

현재 비어스토어에서 취급하는 맥주 종류는 800 가지 정도이며 이중 로컬 맥주 회사 190여 개의 약 380 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앞서 말한 온타리오산 30여 개 중소 맥주제조사의 로컬 맥주가 포함돼 있다. 그 어떤 동네 편의점이 이 정도 규모의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 맥주를 취급할 수 있겠는가. 편의점은 결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비어스토어아말로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 많은 중소 맥주제조사 제품을 취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 간 이들 맥주 매출이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다. 비어스토어 전체 매출은 거의 10%가 감소했음에도 오직 온주 로컬 맥주만이 이런 놀라운 실적을 거둔 것이다. 전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단 하나, 지난 정부에서 허용해준 식품점의 맥주판매 때문이다. 퀘벡과 미국처럼 그냥 민영 판매망을 편의점과 대형 소매유통채널로 확산하면 지역산 맥주 매출이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은 순진한 생각이다. 공간의 한계가 있는 편의점이나 여타 소매업소들은 지명도 높은 유명 인기 맥주만 취급할 공간이 매우 크다.

이 판단은 단순한 신념 이상의 문제다. 극히 작은 공간을 가진 편의점이 금쪽같은 진열대를 잘 알려지지 않은 로컬 맥주 진열에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편의점 체인의 지존인 세븐일레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동네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고가의 고급 초콜렛이나 비싼 유기농 야

채를 찾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편의점이 틈새 시장 확대 전략으로 로컬 맥주(niche beers)를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공간의 제약 때문이다.

반면, 우리 비어스토어는 로컬 맥주를 위한 공간도 넉넉하고 검증된 수요까지 파악하고 있다. 만족할 보수로 고용된 7천 여 비어스토어 직원들은 책임성있게 로컬 맥주를 취급 판매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편의점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연금 지원(pension plan)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비어스토어는 로컬 맥주를 그 어떤 다른 주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민영화 시스템을 자랑하는 알버타보다도 훨씬 저렴하며 최소한 더 개방적으로 알려진 퀘벡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금은 온타리오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무때고 알버타를 방문해 민영 술가게를 둘러보라. 맥주 가격이 비싼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비어스토어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훨씬 종류가 적다는 것도 알게 된다. 퀘벡의 데판노(편의점의 불어)도 방문해 보라.

신선한 수제 맥주의 대표적인 아이피에이(IPA ; Indian Pale Ale)나 진한 흑맥주 스타우트(stout)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맥주 진열대를 아무리 샅샅이 훑어도 이런 희귀하고 훌륭한 로컬 맥주는 발견하지 못하며 그냥 대형 회사의 유명 맥주만으로 꽉 채워져 있을 뿐이다.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우리 비어스토어는 퀘벡의 편의점이나 알버타의 민영화된 리커스토어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로컬 맥주를 취급한다. 또한 가격도 더 저렴하다. 편의점은 고객들을 위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매출 규모때문이고 로컬 맥주 회사들의 운송비 부담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어스토어의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환경보호 기여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소매업 체인사들도 우리만큼 환경적 측면에서 제품책임관리를 할 수 없다. 우리의 친환경정책은 역사가 오래 됐다. 세인들의 관심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재활용 정

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만약 편의점까지 맥주를 판매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우리 비어스토어 판매망은 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취급 품목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결국 빈병 반납 장소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어스토어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의식했음인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빅 피델리 재무장관의 말을 빌어 지난 5월 27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온타리오 주류판매 시스템을 민영 소매유통 확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아래 박스 기사로 소개한다.)■

5월 27일

## <빅 피델리 장관 기자회견>

### 선택의 폭, 편의성, 공정성 증대를 위한 주류 정책 비어 판매의 독과점 시대 종지부칙을 입법 작업 진행 중

온주 정부가 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 편의성, 공정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실현에 착수했다. 우선 비어스토어와의 공정하지 못한 이전 정부의 계약을 종료할 입법화를 추진코자 한다. 이는 편의점, 대형유통채널, 또 현재 일부에서 술판매를 허가 받은 식품점보다 더 많은 식품점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납세자의 권익은 보호를 하면서 말이다.

비어스토어와의 불공정한 계약은 오직 3개 대형 다국적 맥주 제조회사의 이익을 온주의 소비자, 납세자, 그리고 중소기업인 이익보다 우선하고 있다. 이 계약은 더 많은 선택, 더 나은 편의를 원하는 온주 주민에게는 나쁜 계약이며 맥주업계에서 온당한 경쟁을 원하는 유관 비즈니스에 크게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온주알콜정책검토평가특별자문관(Ontario's Special Advisor for the Beverage Alcohol Review)인 켄 휴즈씨가 작성한 리포트를 공개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온주 주류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불편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현재의 비어스토어와 체결돼있는 계약, 다시 말해 3개 대기업과의 계약이 온타리오의 공정하고 편리한 주류 시스템 전환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문관 켄 휴즈씨는 “온타리오의 주류 소매판매 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많은 난제들이 2015년에 자유당 정부가 비어스토어와 체결한 계약, 일명 ‘Master Framework Agreement’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비어스토어는 3개의 글로벌 거대 맥주제조사의 소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때문에 많은 스톱 비즈니스들이 알콜 소매 유통 진입을 차단당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로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온타리오 정부는 선택과 편의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현행 계약의 수정에 이르기 위해 비어스토어측과 상호 노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

피델리 재무장관은 “비어스토어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맥주 제조사들이 온타리오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입장을 가지고 온타리오 주류판매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은 맥주 판매 소매 채널의 확대가 골자이며 소자영업의 비즈니스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모델이다.

## 몇가지 팩트들

- 비어스토어는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3개 다국적 맥주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몰슨이 51%, 라밧이 45%, 슬리만이 4%이다.

- 로컬 맥주 회사들은 비어스토어 매출에서 불과 2% 미만을 차지할 뿐이지만 LCBO에서는 10% 이상, 식품점에서는 15% 이상의 매출을 차지한다.

- 자유당 정부하고 비어스토어가 맺은 계약 (2015 Master Framework Agreement)은 12개 팩, 24개 팩과 같은 대량 맥주 구입을 오직 비어스토어에서만 가능하도록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 주별 주민 수와 비교해볼 때 온타리오는 다른 어떤 주보다 술 소매 판매 채널이 적다. 퀘벡이 8천 개가 넘는데 온타리오는 3천 개도 안된다.

- 전국소매업협회(RC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비례)전국 평균에 도달하도록 온타리오가 알콜 판매소를 증가시키면 9,1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자료는 또 세전(稅前)가격 대비해 온타리오의 24개짜리 인기 맥주가 퀘벡보다 8.3%가 비싸다고 밝히고 있다.

(\*온주 정부는 위 기자 회견이 있던 이틀 후인 5월 30일 의회에 비어스토어와의 계약 파기를 골자로 하는 법안 Bill 115를 의회에 상정했다. '주류판매의 선택과 공정성에 관한 법률'(Bringing Choice and Fairness to the People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비어스토어와의 계약 파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열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천연의 통째 재료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소량 분배 생산 표시

193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vs. 최고급 점보 씨앗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 아시아 최초, 출시 첫날 짝쓸이로 구하기 어려워 JUUL의 파죽지세, 한국에도 상륙



▲ 주울랩(Juul Labs)의 공동 설립자 아담 보웬(왼쪽)과 제임스 몬시스가 직접 방한해 출시 이틀전인 5월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 첫 출시날인 5월 24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은 10개 입고품이 두시간 만에 모두 팔려 재주문했다고 한다. 예약 판매까지 등장하는 지경인데 열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관심이 되고 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을 불과 수년만에 짝쓸이하고 작년 가을부터 캐나다 시장까지 상륙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주울(Juul)이 드디어 한국에도 진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인 주울은 지난 5월 24일부터 한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첫 국가라고 한다. 판매처는 두곳의 편의점 체인인 GS25와 세븐일레븐 그리고 일부 면세점에서 시작했지만 정작 구입하기가 어려웠다. 출시를 기다렸던 전자담배 매니아들이 진열되기 무섭게 사갔기 때문이다. 인기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기기는 품절됐고 니코틴 공급하는 카트리지 껍만 일부 남아 있는 모습이였다. 아이코스를 비롯한 여타 권련형 전자담배는 포장부터 거창하지만 주울은 포장도 간단하다. 얼핏 보면 USB모양의 가름하고 기다란 기기와 소형의 껍 모두 합쳐봐야 일반 담배갑 사이즈를 넘지 않는다. 껍은 5가지 맛을 취급한다. 충전도 매우 편하다. 노트북 USB 포트를 이용해 가능하다. 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니다가 아무때고 꺼내 즐긴다. 별도의 버튼이나 스위치도 필요없이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스탠퍼드 대학 디자인 스쿨 재학생인 제임스 몬시스와 아담 보웬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울랩스는 이후 10여년의 시행착오 끝에 지난 2015년부터 기존의 아성인 블루(blue)를 무너 뜨리고 파죽지세의 기세로 시장을 석권해 고작 2년 뒤인 2017년에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넘겼다. 이쯤 되면 전자담배의 신화라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 유럽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치는데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타격감(연기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의 느낌)이 별로 없다고 한다. 니코틴 함량이 낮아 맛이 진하지 않고 다소 밍밍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즘 순한 맛을 즐기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그리 결정적인 단점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냄새가 덜 나고 재가 날리지 않아 차량용으로 이용하는 흡연자들에게 먹힐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액상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액상 전자담배 맛과 유사하면서 권련형 전자담배보다는 연무량이 더 많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껍 하나 당 일반 담배 한갑에 맞먹는다고 하지만 타격감이 약해 더 많이 흡입하게 되는 느낌이라서 일반 담배 흡연량보다 더 많은 흡연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다.

유해성 문제와 관련한 출시 기념 설명회에서 이렇다 할 해명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디자인과 휴대 측면에서 워낙 간편하다 보니 미국처럼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담배의 대체품으로 북미주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소년 흡연 습관 부추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시장 안착을 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끝으로 세금 관련 논란도 해결할 숙제다. 카트리지 기준으로 권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나 주울 모두 4500원이며 일반담배도 평균가격이 4500으로 같은 가격이다. 그러나 세금은 일반담배의 세금 3,323원의 53%에 불과한 1,769원에 불과하다. 아이코스도 3,004원이니 같은 전자담배끼리 비교해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만하다. 정부는 판매 추이를 보며 세금 인상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한다. ■

# 세븐일레븐 모기업, 친환경 캠페인 박차



전세계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수많은 소매 유통 체인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의 세븐 앤아이홀딩스가 그룹 차원에서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완전 퇴출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세븐일레븐의 일본 모기업인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 & i Holdings)가 오는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 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방영된 NHK월드 뉴스 보도에 의하면 회사 측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1회용 플라스틱 백은 대신 종이나 여타 식물을 소재로 한 쇼핑백으로 대체시킬 방침이다. 또한 취급 하는 제품의 용기도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것은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줄일 것이며 오는 2050년이 되면 제품의 모든 용기는 플라스틱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대신 제품들의 포장 소재는 종이를 비롯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사용된다.

세븐앤아이 그룹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감축 캠페인에 소비자들이 동참 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이제부터는 일회용 백이 필요한지를 손님에게 무조건 물어 보고 원

할 때만 준다. 또, 홍보 포스터와 POS 표지물을 통해 쇼핑백을 손님들이 알아서 가져올 것을 권하는 메시지도 나온다.

세븐앤아이 그룹 산하의 슈퍼마켓 체인사인 이토요카도(Ito-Yokado Co. Ltd.)는 무료로 제공해왔던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제공을 이미 모든 점포를 통해 중단했고 역시 산하의 또다른 슈퍼마켓 체인인 욕베니마루(York-Benimaru Co. Ltd.)도 전체 매장의 90%가 중단을 시행하고 있다.

세븐아이 그룹 산하의 일본 세븐일레븐은 바오매스 폴리에틸렌 쇼핑백 도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세븐일레븐까지 인수해 세계 세븐일레븐 체인의 모회사가 된 세븐앤아이홀딩스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산하에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유통할인매장, 특산물 스토어, 푸드서비스 등 거대 종합유통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매장만 보면 북미주(미, 캐나다)에 11,800개를 포함해 17개국에 67,000개 이상의 체인망을 거느리고 있다. ■



## 캐나다한인여성회 2019년 6월 프로그램

사전등록 필수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지참

###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

- 일시: 6월 4, 11, 18, 25일 (화) 총 4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김진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부모마음의 중심 세우기  
2. 인간관계의 4가지 패러다임  
3. 자녀를 존중하는 대화법, 가족의 시간 & 엄마의 시간

###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일시: 6월 6, 13일 (목) 총 2회기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2.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3.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 갱년기 바로 알고 극복하기

- 일시: 6월 22일 (토)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주영숙 (문의: 416-340-1234)
- 내용: 1. 갱년기란 무엇인가?  
2. 갱년기의 증상  
3. 갱년기 전후의 여성질환  
4. 갱년기 질환의 치료와 극복방법

### 배우자 초청 안내

- 일시: 6월 18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철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  
3. 신청서와 구비서류

### 금융정보 세미나

- 일시: 6월 6일 (목)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제외동포의 한국내 자산 반출 안내  
2. 해외이주를 위한 자산 반출 및 송금 정보  
3. 한국내 부동산 담보를 통한 캐나다 내 대출 제도  
4. 비영주권자/비시민권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정보  
5. 한국/캐나다간의 송금 관련 외환 규정 정보

### 마음의 힘있는 아이 키우기

- 일시: 6월 7, 14, 21, 28일, 7월 5, 12일 (금) 총 6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마음의 힘(회복탄력성)'은 왜 필요한가?  
2. 우리 아이 성격의 비밀: 기질  
3. 어른이 되기 위한 여정: 발달 단계  
4. 가족의 이해: 가족 형태와 가족 관계  
5.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 사회와 환경

### 두근두근 행복한 힐링 태교

- 일시: 6월 27일 (목)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오신성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선물같은 너를 만나는 태교 컬러링  
2. 아롱아롱 편안한 음악 태교  
3. 임마가 들려주는 태교 동화  
4. 내손으로 만드는 아기 조립북

### 사회복지 시리즈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 (문의: 416-340-1234)
- 1. 정부지원 임대주택
- 일시: 6월 3일 (월) /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내용: 정부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신청자격, 절차 등)
- 2. 재정지원
- 일시: 6월 10일 (월) /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내용: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재정 프로그램 소개
- 3. 교통혜택
- 일시: 6월 17일 (월) /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내용: 장애인을 위한 교통혜택에 대한 정보와 시니어 대중교통 세금 크레딧

### 전문 유아교사와 함께하는

### 알찬 써머캠프

- 일시: 7월 2, 3, 4일 (화, 수, 목) 오전10시 - 오후12시 30분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유민, 최성혜 (문의: 416-340-1234)
- 내용: 전문 유아교사와 함께하는 음악과 놀이, 미술, 요리, 신체활동, 구연동화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4-6세의 어린이를 위한 캠프.
- ✓ 신청은 20명 (대상: 4-6세) / 한국어 진행
- ✓ 등록비 \$30 (간식 및 재료비 포함)
- ✓ 오전 9시30분부터 Drop off가능

###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순회 상담 서비스 안내

- 일시: 6월 10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 4시30분
-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 (555 Avenue Rd, Toronto)
-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 416-340-1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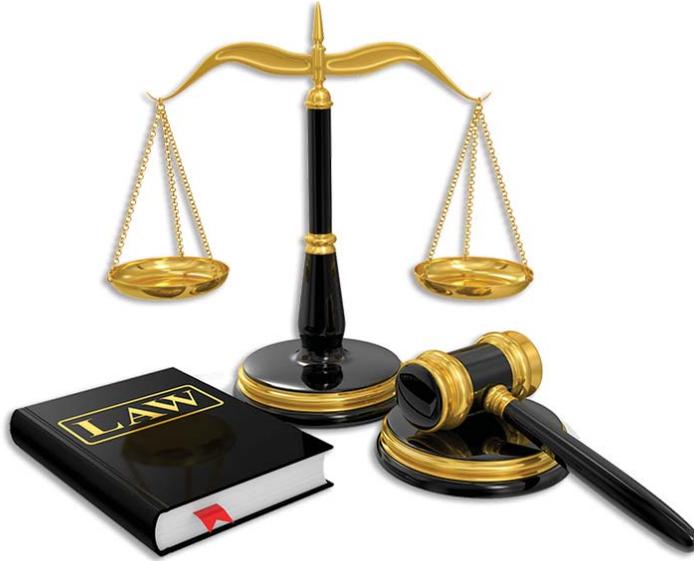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 연방/주정부 稅收의 1%가 담뱃세

## 담배 3사 \$135억 배상 판결의 여파



국내 메이저 담배 3사에 내려진 135억 달러 배상 판결(판결과 그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실협뉴스 3월 27일자 772호에 소개)이 이들 회사로 하여금 이제껏 보지 못한 가장 대규모의 그리고 가장 복잡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나라 재정에까지도 큰 여파를 줄 가능성도 내포한다.

캐나다 담배 산업의 존립을 논해야 할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 국내 메이저 담배회사가 폐업하면 국가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고 불법담배 산업이 일대 붐을 이루게 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담배 3사가 2017/2018 회계연도에 낸 세금은 약 80억 달러. 이 중 30억이 연방 정부로 들어갔고 나머지 50억은 10개 주에 5억씩 배분됐다.

국내 최대 회사 임페리얼 혼자 낸 세금이 40억 달러다. 임페리얼은 국내 전체 담배 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70% 장악으로 독무대를 구가하던 시절과는 양상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 1위다.

담배로 걷히는 세금은 연방 정부 세수의 거의 1%를 차지한다. 만약 이 담뱃세가 걷히지 않는다면 연방이 현재 안고 있는 정부 부채 181억에서 17% 상당의 빚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담뱃세는 또 주 정부 세수에서도 대략 1%를 차지한다.

이런 논의와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은 올해 3월 1일 퀘벡 항소심 법원에서 담배 3사에 내린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퀘벡 주 고등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임페리얼, RBH, JTI 등 메이저 3사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나 담배 회사들이 항소했었다. 이 소송은 캐나다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흡연자 10만여 명이 임페리얼, RBH, JTI 등 메이저 3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싸움이었는데 더 근원은 1998 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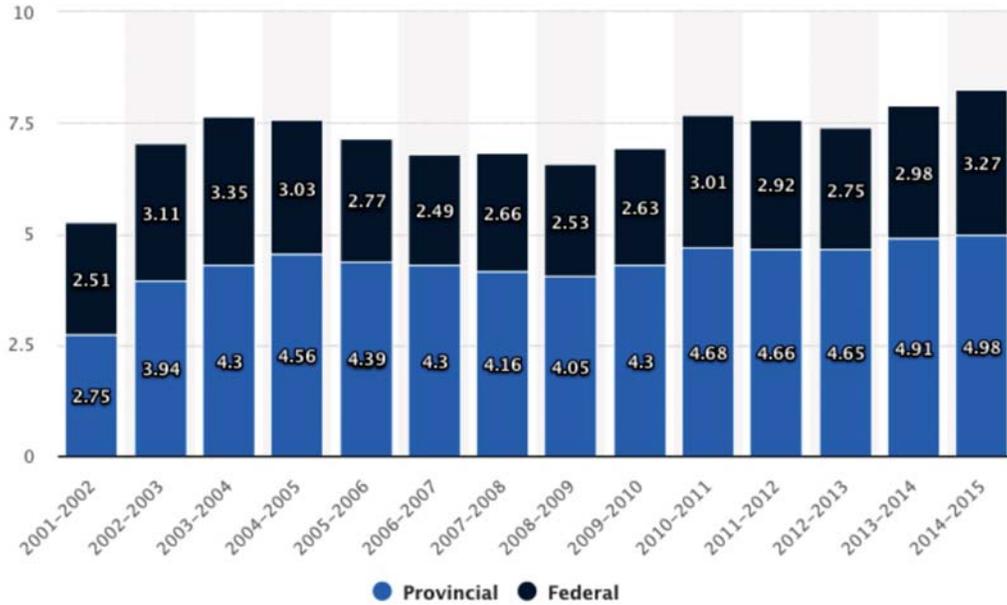
2015년 1심 판결을 내린 브리앙 리오당 판사는 당시 임페리얼(영국 BAT의 캐나다 법인)에 105억 달러, RBH(미국 필립모리스 인터네셔널의 캐나다 법인)는 31억 달러, JTI(일본 Japan Tobacco Inc.의 캐나다 법인)에 20억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그리고 올해 항소법원에서도 원심을 인정해서 원고가 재차 승소한 것이다. 다만 원심 156억원의 배상액은 20억 이상이 감해져서 135억 달러로 정해졌으나 천문학적 배상금임에는 변함없다. 판결문에는 3개 회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지불하지 못하면 남은 회사들이 연대해서 떠안아야 한다는 명령도 들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불길한 의문이 제기된다. 흡연자들이 제기한 이런 집단 소송과는 별개로 국내의 모든 주는 주정부 보건예산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소송 제기의 권리를 입법화해놓고 있다.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소송의 피고가 될 담배회사는 다름아니라 주정부 세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효자들인데 이들을 겨누어 파멸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담배 회사를 대리하는 쟁쟁한 변호사들은 판결이 내린 배상액을 전액 지불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회사의 총 자산 가치가 배상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몬트리얼 콘코디아 대학 경제학 교수 이안 어바인 교수는 '주가수익률(PEI ; price-to-earnings ratio)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기준으로는 더더욱 못미치는 배상액이다.

## 〈정부 담뱃세 수입 추이표〉

단위 : 10억 달러



▲ 연방통계청에서 나온 가장 최근 자료인 정부 담뱃세 수입의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치의 추이표이다. 가장 최근인 2014/2015 회계연도의 연방과 주정부 담뱃세 수입이 2017/2018 회계연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담뱃세 수입은 연방이든 주정부가든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다.

결국 모회사인 BAT,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 JTI가 나서서 개입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미국의 사례를 대조해보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 분명한 사실은 배상금 지급으로 폐업하는 수준에 이르는 일이 있을 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계속 낳아주는 귀한 닭을 한끼

잘 먹자고 그냥 잡아 죽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 즉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소를 제거한 소비자, 정부, 담배 회사들의 모종의 타협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

## B.C 불법담배 대대적 단속 열풍

B.C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으로 주 정부 재정에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5월 말에 나온 B.C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재무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적발, 압수한 불법담배의 총 물량이 거의 6천 킬로그램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물량은 밴쿠버 암시장에서 유통될 예정이었다고.

연방경찰(RCMP), 국세청(CRA), 국경수비대(CBSA) 등 연방 기관들은 물론 여타 사법 기관들과 주내 각 지자체 경찰의 전방위 공조 체제하에 불법담배 유통을 막기 위해 총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법담배 신고를 위한 전용 전화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단속반원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 확인하기도 한다.

주정부 추산에 의하면 세수 손실이 지난 회계연도에 적발된 물량에 대해서만 24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약 150만 달러가 담뱃세, 19만 달러 가까이 가 GST, 68만 달러가 연방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고 한다. 정부는 수신자부담 전용신고 전화, 이메일, 크라임스토퍼 전화번호 등을 공지해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는 홍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

## 쥬얼, 직영 체제 병행 구상



북미주 전자 담배의 지존인 쥬얼 랩(Juul Labs)이 기존에 잘 다져놓은 시장을 기반으로 회사 직영 전문 소매업소 오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내부 기밀 사항이라고 하지만 소식에 밝은 전문가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한 바에 따르면 그 첫 시범 업소는 텍사스의 달라스와 휴스턴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쥬얼은 자금력이 워낙 탄탄해 시장 확장 공세에 마음껏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특히 전체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알트리아 그룹(말보로로 유명한 필립 모리스를 소유한 그룹)이 최근에 쥬얼 랩에 13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2019 미국인 가장 사랑하는 기업브랜드

## 1위 아마존, 2위 구글...12위 삼성전자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most loved brands) 평가 기업 1,900여개 중에서 최대 배달업체인 아마존(Amazon)이 올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구글(Google), 3위는 영화통신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가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구글이 1위였고 아마존이 3위였으

나 극적으로 구글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400점 만점에 아마존 261.9, 구글 261.1 넷플릭스 259.4) 이 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팅(Morning Consult)가 발표해오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20위권에 포진돼 있다. 표로 소개한다.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삼성전자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아닌 해외 업체로 20위 내에 들어 있는 유일한 기업이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무리한 합병 과정의 각종 조작과 증거 인멸 등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이지만 해외 특히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닌 모양이다. 물건이나 서비스만 좋으면 상관하지 않는 실용적 사고의 현대 소비자 특성을 보여주는 단면인듯 싶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9위에 올라 있는 달러트리이다. 달러트리는 미국 달러스토어의 간판급 기업인데 편의점 기능을 두

루 갖추며 편의점 채널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달러스토어의 현주소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어떤 기업 브랜드가 신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위 미국 조사와 유사한 조사를 한 것이 유일한데 질문은 the most trusted brands였으며 캐나다 법인체만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1위에는 MEC(Mountain Equipment Co-op), 2위는 CAA(캐나다자동차협회)로 밝혀졌다. 이하 표로 정리해본다. ■ <표는 15면에 계속>

기업체	2019 순위	2018 순위
MEC	1	2
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2	1
Costco Wholesale	3	3
Home Hardware	4	22
Home Depot	5	8
Fairmont Hotels & Resorts	6	4

기업체	2019 순위	2018 순위
Band-Aid	7	16
Shoppers Drug Mart	8	7
Interac	9	12
Columbia Sportswear	10	22
Canadian Tire	11	20

## 술판매 방해세력 저지위한 협회 역할 강조 회원업소 방문한 조 장관, 정부 지지 당부



▲ 조성준 장관이 업소 내에서 업주인 유정현 회원과 편의점 비어 판매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온주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이 지난 5월 31일(금) 스카보로 지구협 소속 유정현 회원 업소 Donwood Variety (67 Underhill Dr., Don Mills M3A 2J8)를 방문해 주류판매 민영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온주 정부 여당은 편의점 비어 와인 판매 시행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해 장관은 일부러 시간을 내 협회 회원 업소를 직접 찾아 최근의 진행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미 새 회계연도 예산 발표를 전후해 여러 차례 현재의 독과점 주류판매 시스템 효과를 공약해왔던 주정부는 편의점을 포함한 민영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인 비어스토어와 이전 자유당 정부와의 독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법안도 의회에 상정했다. (관련 기사 8-9면 참조)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면담에는 스카보로 지구협회 임종

호 회장과 본부협회 송명현 부회장을 비롯한 1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장관을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비어 와인 판매가 시행되면 취급할 것이냐는 장관의 질문에 유정현 회원은 “이미 내 가게는 수용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시행날만 고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의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동료 회원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며 언제 시행되는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비어스토어의 계약 파기이며 올 가을쯤에 시행 시기와 후속 조치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요일에 있었던 조 장관의 업소 방문을 시작으로 당일날과 주말에 동료 장관들과 보수당 의원들이 총 동원돼 지역 편의점을 방문해서 조 장관과 유사한 현장 면담을 벌였는데 상당수 협회 회원 업소가 이들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업소 방문 중 업소 인근에 거주하는 저스틴이라는 이름의 단골 손님이 쇼핑하러 왔고 장관이 편의점 술판매 허용에 관한 설명을 하자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크게 반겨했다.

대형 축제일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 '제 5의 계절 特需' 대비 세가지 팁



북미주에서 보통 4대 축제일로 치는 것이 시기 순서별로 발렌타인 데이, 부활절, 할로윈, 크리스마스이다. 따지고 보니 직간접적으로 다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날이다. 반짝 특수를 노리는 계절 아이템들로는 주로 당과류, 축하 카드, 선물카드 등이 많이 나간다. 그런데 이 4대 축제일 말고도 편의점 업주들이 염두에 둘 이름하여 제 5의 계절 특수가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보통 어머니날, 아버지날, 건국기념일 (Canada Day), 그리고 수퍼볼(Super Bowl)을 포함시킨다. 마지막 것은 스포츠 이벤트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

마스리글리(Mars Wrigley Confectionery U.S)의 신제품/계절제품 담당 편의점 파트 부회장 짐 다지씨는 "소매업소의 계절 특수 장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대돼 왔으며 주요 축제일이 끝나 끝이 물리고 물리며 이어지는 모습"이라면서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대형 축제일 이외에도 미니 축제일들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정확한 분석이다. 편의점 업주들은 작은 이벤트를 활용해, 다시 말해 제 5의 계절 특수를 노리고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기획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3가지 조언을 소개한다.

## 1. 시각적 변화를 줘야

제 5의 계절 특수를 위한 상품기획은 일차적으로 공간 배정의 문제다.

시즌을 겨냥한 상품에 더 많은 진열 공간을 할당해줘야 한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만 투자하면 된다. 소매업 관련 컨설팅 회사의 한 전문가는 연중 계절 특수 기간에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 트래픽과 평상시의 방문 트래픽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며 손님 니즈에 맞춘 상품 기획을 올바르게 가져가면 매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 2. 하절기는 편의점 최대 성수기

캐나다는 여름 시즌을 빅토리아 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7월 1일 건국기념일을 거치고 (온타리오의 경우 시빅 할러데이가 있음) 9월 초의 노동절에 이르는 기간으로 보는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두개의 특별 공휴일을 끼고 긴 주말이 있다. 따라서 편의점 주인으로서는 하절기 영업에 특별한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종합적이고 세심한 상품기획과 진열 기법을 동원해 손님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전문가는 캐나다의 여름 시즌이야말로 이벤트나 축제일의 연속이며 소비자 구매행태가 일련의 변화를 경험하며 길게 이어지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여기다가 쇼핑도 대단위로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시즌이다보니 쇼핑 물량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량 구매 손님을 겨냥한 할인 가격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물량도 밀어내며 현금이 원활히 유통된다. 평소에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던 제품들에



를 들어 선글래스, 선스크린, 물놀이 기구나 물놀이 장난감 등이 많이 나간다. 고속도로변이나 관광지 인근의 편의점은 특히 이런 계절 특수아이템들의 재고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선글래스 하나만 놓고 보자면 제대로 계절특수에 대처하는 스마트한 업주는 손님들의 충동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선글래스 랙을 멋있게 설치해놓고 여름한철 꽤 재미를 본다. 마치 음료 쿨러에 재고물량을 잘 진열해놓고 불타나게 파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스타일선글래스라는 회사 사장 알 언더우드씨는 “음료 쿨러는 잘 돌보고 관리하며 의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업주들이 충동구매로 그만인 선글래스와 같은 계절 상품을 등한히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름만이 아니다. 날이 풀리는 봄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긴 겨울의 음습함에서 기지개를 활짝 켜며 약동하는 분위기로 되살아날 때 이에 부응할 아이템들은 손님들에게 새로운 기분을 전달하고 쇼핑 욕구를 자극한다. 봄에는 또한 소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Easter)이 있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9월에 들어서자마자 노동절이 있고 긴 주말을 이용한 반짝 대목을 노려볼 수도 있다.

### 3. 전국적 이벤트의 날들

공식적으로 휴일인 가정의날, 시민의날만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비록 국가 또는 주정부 지정 휴일은 아니지만 주별로 수많은 ‘전국 ○○○ 날’이 있다.

특히 미국쪽에서 이런 날들을 많이 기념하는데 예를 들어 ‘National Ka-

zoo Day라고 있다. 매년 1월 28일에 있는데 카주라는 새로운 악기를 즐기며 음악 페스티벌을 연다. 이 기회에 주변 소매업소들의 매상도 쾀다. 전국 저키의 날도 있다. 별의별 기상천외한 이벤트의 날이다. 커피의 날도 있지 않는가.

소매업 컨설팅 전문가 케이티 토마스라는 사람이 전국 데킬라의 날(7월 24일)을 창시했다. 재미가 들었는지 전국 딸가리타(\*각테일의 일종)의 날을 2월 22일로 지정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신이 날을 만들고 자신이 이에 편승한 사업을 한다. 비상한 머리들을 쓰는데 그냥 흘러 볼 일은 아니다. 전국적 단위로 즐기는 기념일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나름의 판촉 아이디어를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이 아니라도 좋다. 하다못해 지역 단위로 벌어지는 기념 행사 - 스포츠, 예능 등 - 를 후원함으로써 업소 존재감도 알리면서 판촉 행사를 기획해보자. 의미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

**(주) 하이쿨 테크** 냉동·히팅

“신속하고 쿨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뭉쳐 기술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클러/후리저, 덕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세탁전문점 정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속과 책임심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 나이아가라 지구협회 골프대회

2019년 나이아가라 지구협회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회원들과 공급업체와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12시
- **장소** : Riverview Golf club  
(313 Victoria Ave. Fenwick, ON.)
- **참가비** : 1인당 \$100  
(18홀 카트, 저녁, 상품포함)
- **신청 마감** : 6월 14일  
(email : niagarakba@gmail.com)
- **기타 사항**
  - 각 홀마다 \$300 스폰서 후원
  - 근접상, 장타상

나이아가라 지구협회장 김흥기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866) 76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866) 760-1926

##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이사 (가나다 순)  
김대영 (Dae-Young Kim)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가나다 순)  
백사열 (Sah-Yeal Paik)  
장해민 (Hae Min Jang)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 KBA 협동조합 고객 감사의 날 행사

6월 19 - 20 (수, 목) 이틀간

협동조합 6월 고객 감사의 날 행사가 19일과 20일 양일간에 열린다. 짝수달에 격월로 치르는 고객감사의날 행사가 회수를 더해가며 점점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조합 임직원들은 한껏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5월 27일 열린 조합 월례 운영이사회에서 신영하 운영이사장은 6월 고객감사의날 일정을 밝히면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파격 세일과 주문 배달 서비스가 있을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의 많은 쇼핑과 주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기호 부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19일에는 베이핑 제품에 대한 특별 판촉, 20일에는 당과류와 음료를 중심으로 한 특별 판촉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핑 제품의 경우 업소에 배달하고 현장에서 수수료없이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Customer  
Appreciation Day

한편, 특별 판촉을 위해 협회는 조합 건물 매입 대금 선지급에 따른 저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그 몫에 해당하는 돈을 조합 특별 판촉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합은 은행 빚을 완전히 청산한 터라 협회의 지원까지 보태 조합원을 위한 보다 유리한 가격 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영업 중단으로 단일 매장 운영체제가 된 조합은 과거 어느때보다 의욕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들의 쇼핑 욕구를 자극할 다양한 구상을 진행 중인데 2리터 팝 제품들은 연중 원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베이핑 제품도 현재 시중에서 인기를 구가하는 5종의 취급 제품에 더해 JTI의 전자담배 로직(Logic)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 (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 (MSRP)**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 JUNE

## Special Sale



**3<sup>49</sup>**  
**2<sup>39</sup>**  
**Mott's**  
Clamato Juice 945ml All flavours  
Reg.\$2.59 **Spe.\$2.39**  
Clamato Juice 1.89L All flavours  
Reg.\$3.79 **Spe.\$3.49**



**39<sup>99</sup>**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9.99**  
24/355ml Original Only  
Reg.\$60.99 **Spe.\$57.99**



**18<sup>99</sup>**  
**Fiji**  
24/500ml Reg.\$24.49 **Spe.\$18.99**  
12/1L Reg.\$22.29 **Spe.\$16.99**  
12/1.5L Reg.\$26.69 **Spe.\$19.99**



**9<sup>99</sup>**  
**Snapple**  
Snapple 12/473ml All Flavours  
Reg.\$12.55 **Spe.\$9.99**



**4<sup>99</sup>**  
**Nestle Purina**  
Friskies Dry Cat Food 1.4kg-1.5kg All Flavours Reg.\$4.59 **Spe.\$3.89**  
Friskies Dry Cat Food 454g Reg.\$1.69 **Spe.\$1.35**  
Beneful Dry Dog Food 1.6kg-1.8kg All Flavours Reg.\$5.59 **Spe.\$4.99**  
Beneful Dry Dog Food 283g Reg.\$2.25 **Spe.\$1.95**



**1<sup>59</sup>**  
**3<sup>29</sup>**  
**2<sup>49</sup>**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Nestle**  
Single Chocolate Bars All Flavours  
Reg.\$23.99 **Spe.\$20.99**

**20<sup>99</sup>**



**C.B 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13<sup>99</sup>**

**4<sup>19</sup>**



**Regal**

Original Raspberry Squashies (160g) Reg.\$1.39 **Spe.\$1.19**  
Original Cherry/Apple Squashies (160g) Reg.\$1.39 **Spe.\$1.19**  
Original Bubble Gum Squashies (160g) Reg.\$1.39 **Spe.\$1.19**  
Surprise Bags 75g Reg.\$31.59 **Spe.\$28.69**  
Baby Bottle Gummy Blast Reg.\$14.49 **Spe.\$12.99**

**1<sup>19</sup>**

**12<sup>99</sup>**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1<sup>99</sup>**



**Clover Leaf**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1.35 **Spe.\$1.19**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Premium light Yellow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1<sup>25</sup>**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6<sup>49</sup>**



**Dare**  
Real Fruit Gummies 50g-55g All Flavours Reg.\$16.35 **Spe.\$11.35**  
Real Fruit Gummies 140g-180g All Flavours Reg.\$2.05 **Spe.\$1.89**  
Traditional Candy Pegtop 200g-250g All Kinds Reg.\$1.89 **Spe.\$1.69**  
Breaktime Cookies 300-315g All Kinds Reg.\$1.75 **Spe.\$0.99**

**0<sup>99</sup>**

**1<sup>89</sup>**

**1<sup>69</sup>**



**Mondelez**  
Crispers 175g All Flavours Reg.\$2.15 **Spe.\$1.95**  
Triscuit 225g All Flavours Reg.\$2.65 **Spe.\$2.45**

**1<sup>95</sup>**

**2<sup>45</sup>**



### Bertolli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19**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4.95**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4.95**

**4<sup>95</sup>**



### Maple Leaf

Top Dogs 375g All kinds All Flavours Reg.\$3.39 **Spe.\$2.75**

**2<sup>75</sup>**



### Campbells

Red & White Soup 284ml All Flavours Reg.\$1.69 **Spe.\$1.45**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2.99 **Spe.\$2.25**  
Chili 425g All Flavours Reg.\$2.55 **Spe.\$2.29**

**2<sup>29</sup>**

**2<sup>25</sup>**



###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85 **Spe.\$2.59**  
Spam 340g All Flavours Reg.\$3.29 **Spe.\$3.09**

**3<sup>09</sup>**

**2<sup>59</sup>**



**1<sup>19</sup>**

### Hunts

Hun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1.99 **Spe.\$1.19**



**1<sup>09</sup>**

### Conagra

Chef Boyardee 411g-425g All kinds Reg.\$1.69 **Spe.\$1.09**



**18<sup>99</sup>**

###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8.99**



**1<sup>99</sup>**

**2<sup>39</sup>**

**3<sup>89</sup>**

###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3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3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3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8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8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8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39**



**3<sup>59</sup>**

**2<sup>79</sup>**

###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Always**

-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 Flexi Wings 12pk 4.69 **3.95**
- Flexi Wings 16pk 4.69 **3.95**
- Reg 64pk 4.69 **3.95**
- ALWAYS THIN/MINCE FLEXI-STYLE**
- Panti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19<sup>49</sup>** **17<sup>99</sup>**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15<sup>19</sup>**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124<sup>99</sup>**

**Cricket** Lighters Pre Pack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 Mon. 06:30 - 17:00
- Tue. 06:30 - 17:00
- Wed. 06:30 - 17:00
- Thur. 06:30 - 17:00
- Fri. 06:30 - 17:00
- Sat. 06:30 - 16:00
- Sun. 11:00 - 17:00**



# 2019 5.26~6.29



Doritos XL 2/\$7<sup>50</sup>



Cheetos XL 2/\$7<sup>50</sup>



Doritos / Cheetos 2/\$3



Spitz 2/\$4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5월 26일부터 2019년 6월 29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http://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